

明代 後七子 李攀龍과 王世貞의 교유에 대한 고찰*

— 이반룡과 왕세정의 서신 왕래를 중심으로 —

당 윤 희**

<目次>

- | | |
|---------------------|-----------------|
| I. 서론 | 2. 은거 생활과 시문창작 |
| II. 이반룡과 왕세정의 詩社 활동 | IV. 왕세정의 귀향과 교유 |
| 1. 後七子の 결성 | 1. 부친의 무고한 죽음 |
| 2. 후칠자의 구성원 | 2. 吳中의 생활 |
| III. 이반룡의 귀향과 교유 | V. 결론 |
| 1. 지방관 생활과 귀향 | |

I. 서론

명대 嘉靖·隆慶 연간에 李攀龍(이반룡, 1514~1570)¹⁾과 王世貞(왕세정,

* 이 논문은 2022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李攀龍(이반룡, 1514~1570)의 자는 于鱗(우린), 호는 滄溟(창명)이며, 山東 濟南府 曆城(역성, 지금의 濟南) 출신으로, 명대의 유명한 문학가이다. 이반룡은 嘉靖 23년(1544) 同進士 출신으로 가정 24년(1545)에 병이 나서 귀향하였다가 이듬해 가정 25년(1546)에 京師로 돌아와 順天鄉試同考試官(순천향시동고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에 刑部廣東司主事(형부광동사주사), 員外郎(원외랑), 刑部山西司郎中(형부산서사랑중), 順德知府(순덕지부), 陝西按察司提學副使(섬서감찰사제학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가정 35년(1556)에는 귀향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귀향한 후 전원을 즐기며 詩作에 몰두하였다. 隆慶 원년(1567)에 이반룡은 다시 복직되어 浙江按察司副使(절강감찰사부사)에 임명되었고, 이후 浙江布政使司左參政(절강포정사좌참정), 河南按察使(하남감찰사)

1526~1590)²⁾, 謝榛(사진, 1499~1579), 宗臣(종신, 1525~1560), 梁有譽(양유예, 1521~1554), 徐中行(서중행, 1517~1578), 吳國倫(오국륜, 1524~1593) 등 문인들은 서로 어울려 시와 문장을 창작하고 화답하면서 하나의 詩社를 형성하였고 弘治 연간에 나타나 복고주의를 제창하였던 ‘前七子(전칠자)’의 문학 이론을 계승하였다. 중국문학사에서 ‘後七子(후칠자)’ 또는 ‘嘉靖七子(가정칠자)’라고 불렀던 인물들 중에 이반룡과 왕세정은 후칠자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초기에는 이반룡이 후칠자의 문학 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반룡이 죽은 후에는 왕세정이 20년간 문단을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후칠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시기는 길지 않으며 7명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지속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에 관련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이반룡과 왕세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대 후기 복고주의

등의 관직을 지냈다. 융경 4년(1570)에 향년 5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이반룡의 문집으로 《滄溟先生集(창명선생집)》이 전한다. 《明史·文苑三·李攀龍傳》, 권287.

- 2) 王世貞(왕세정, 1526~1590)의 자는 元美(원미), 호는 鳳洲(봉주), 또 다른 호는 弇州山人(엄주산인)으로, 南直隸 蘇州府 太倉(태장, 지금의 江蘇 太倉市) 출신인 명나라 문학가이자 역사학자이다. 가정 26년(1547)에 진사에 급제한 후에 大理寺左寺(대리시좌사), 刑部員外郎(형부원외랑)과 郎中(낭중), 山東按察副使(산둥안찰부사), 青州兵備使(청주병비사), 浙江左參政(절강좌참정), 山西按察使(산서안찰사)를 역임했다. 왕세정의 아버지 王忬(왕여)는 뛰어난 무관으로서 당시에 명대 해안을 자주 약탈하던 왜구를 크게 물리치며 명성이 높아졌다. 당시 명대 권력자였던 嚴嵩의 시기를 받은 왕여는 왜구 섬멸에 실패하였다는 죄명으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하였다. 왕세정 역시 이 일로 크게 실의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융경 원년에 복관한 후로는 정치와 문학의 양 방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萬曆 시기에는 湖廣按察使(호광안찰사), 廣西右布政使(광서우포정사), 鄖陽巡撫(운양순무)를 지냈으며, 이후 張居正과 사이가 나빠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복직되어 應天府尹(응천부윤), 南京兵部侍郎(남경병부시랑)을 거쳐 南京刑部尚書(남경형부상서) 등의 관직에 이르렀으며, 사후에 太子少保(태자소보)에 추증되었다. 또한 왕세정은 많은 시문과 역사 저작을 창작하여 《弇州山人四部稿(엄주산인사부고)》, 《弇山堂別集(엄산당별집)》, 《藝苑卮言(예원치언)》, 《觚不觚錄(고불고록)》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明史·文苑三·王世貞傳》, 권287.

문풍에 대한 이해는 한정된 면모에 그치거나 혹은 시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하겠다.

중국에서의 이반룡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 《滄溟先生集》의 교점본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반룡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왕세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거대한 분량의 저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최근에는 《弇州山人四部稿》의 교점본이 드디어 출간되었으니, 기본 자료가 겨우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교점본에 지나지 않으며 주석본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왕세정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반룡과 왕세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³⁾ 국내에서는 연구의 공백이 더욱 큰 상황이므로 중국문학사 연구에서도 주의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⁴⁾

이반룡과 왕세정은 후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반룡이 왕세정보다 12살 많았지만 이반룡은 문벌 출신의 총

3) 기초 자료로서 1970년대 姜公韜의 《王弇州的生平與著述》, 許建崑의 《王世貞評傳》, 黃志民的《王世貞研究》가 있고, 90년대에는 徐朔方的《王世貞年譜》와 鄭利華의《王世貞年譜》 등이 있다. (박정애, 《예원치언연구》 3-4쪽 참조). 그 외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周穎의《王世貞年譜長篇》이 왕세정의 작품 및 주변 인물들의 작품을 연결시켜 분석하여 왕세정과 주요인물들의 사적을 연보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왕세정의 문학관과 작품 세계를 분석한 저서로 麗波의《王世貞文學研究》(北京: 中華書局, 2011)가 있다. 그리고 이반룡에 대한 기초 연구로는 許建崑의《李攀龍文學研究》(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가 이반룡의 문학관, 작품 분석, 연보와 관련인물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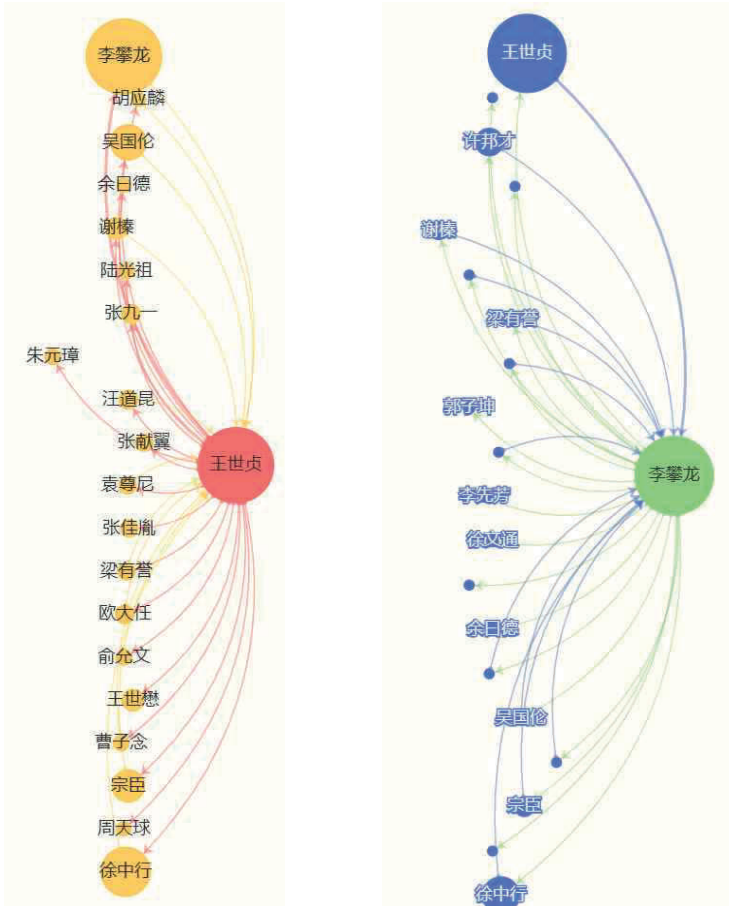
4) 국내의 연구에서 이반룡만을 주제로 한 논문은 한 편도 없고, 왕세정을 연구 주제로 삼은 논문 중에 박균우, 《王世貞生平簡述及其儒道釋三教的立場論》,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퇴계학과 유교문화》 50집)과 박정애, 《王世貞〈藝苑卮言〉의復古理論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두 편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왕세정의 생평과 문학기론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는 주로 한국한문학 분야에서 중국 명대 전후칠자의 복고론의 영향에 대해서 다룬 논문들이 몇 편 전해지고 있다.

명하고 젊은 왕세정과 돈독하게 지내며 후의를 아끼지 않았고 왕세정은 시문으로 명망이 높은 이반룡을 믿고 따랐다. 이반룡은 嘉靖 23년(1544)에 31살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으며 왕세정은 가정 26년(1547) 22살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진사에 급제하여 가정 28년(1549)에 서로 교유하며 시회를 만들었고 관료 생활의 애환과 문학 창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혹은 낙향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기도 하였지만 편지를 왕래하고 시를 창화하면서 이반룡이 융경 4년(1570)에 별세하기까지 약 20년 넘는 동안 우정을 굳게 지켜갔다. 이반룡이 죽은 후 왕세정은 그를 위해 〈李于鱗先生傳〉을 쓰고 120韻에 이르는 〈哭李于鱗〉의 시편을 작성하여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智識圖譜〉⁵⁾에 의하면, 왕세정의 작품에서 이반룡이 언급된 횟수는 시에서 227회로 명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반룡의 작품에서 왕세정이 언급된 횟수는 153회로 역시 명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반룡의 《창명선생집》에 실린 문장의 서독류 중에서 왕세정에게 보내는 편지 19수와 왕세정의 《엄주산인사부고》에 수록된 서독류 중에서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보내는 편지 28수를 기초 자료로 삼아 두 사람의 교유 관계의 면모를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

5) 知识图谱网(지식도보망, <https://cnkgraph.com/>)은 시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물 및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합하여 관계망을 구축하고,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지식그래프망은 특히 인물 연구 및 문헌 속 관계 분석에 유용한 기능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중국 고전 시문에 언급된 인물들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인물 간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의 네트워크와 문학교류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의 문학 작품이 반영하는 교유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왕세정 중심의 인적 관계도

이반룡 중심의 인적 관계도

〈그림 1〉 지식그래프망에 나타난 이반룡과 왕세정의 인적관계망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편지야말로 두 사람의 교유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⁶⁾ 또한 두 자료 모두 주석

6)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에 따르면 《창명선생집》에 실린 문장 가운데 書牘類는 총 229편인데(357쪽) 본고에서는 그중에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보낸 편

본이나 해석본이 없기 때문에 이반룡과 왕세정의 서신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은 명대 복고주의 문풍의 문장을 해독하는 기초 자료로서 이후 연구를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이반룡과 왕세정의 詩社 활동

李攀龍(1514~1570)은 山東 濟南府 사람이고 王世貞(1526~1590)은 지금의 江蘇省 太倉 출신으로 두 사람은 12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사에 급제하여 함께 관료에 들면서 교류하게 되었다. 이반룡은 가정 23년(1544) 同進士 출신으로 이듬해 병이 나서 귀향하였다가 가정 25년(1546)에 順天鄉試 同考試官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가정 26년(1547)에 刑部廣東司主事가 되어 京師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왕세정은 같은 해인 가정 26년(1547) 3월, 22살의 어린 나이에 진사가 되었고 그해 4월에 大理寺에 소속되어 경사에 머물며 여러 문인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시문의 창작과 문학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⁷⁾

1. 後七子の 결성

이반룡은 처음 刑部에 임관한 후에 濮州 출신의 李先芳, 臨淸 출신 謝榛, 孝豐 출신 吳維嶽 등과 함께 시사를 조직하여 시문을 창화하며 어울리게 되었다. 가정 27년(1548) 왕세정은 刑部主司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

지로 분류된 〈與王元美〉, 〈報元美〉, 〈答元美〉 등 19수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임주선생사부고》의 서독류 가운데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보낸 서신인 〈李于鱗〉 28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왕세정과 이반룡이 주고 받은 서신은 서독류로 분류된 것 외에도 다양한 문체와 형식을 지닌 서신류와 시문 창화까지 더하면 수량이 더욱 많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두 사람의 문집에서 각각 서로의 이름으로 분류한 서독류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7)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91-98쪽.

는데, 이때 同年 진사 출신인 李先芳(1511~1594)의 소개를 통해 비로소 이반룡을 알게 되어 친교를 맺고 교유하게 되었다.⁸⁾ 참고로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쓴 편지인 <왕원미를 전송하는 편지[送王元美序]>에는 이반룡이 왕세정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전에 濮陽 사람 李先芳이 여러 번 元美 왕세정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지요. 왕원미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마침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있는 자리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대가 마음으로 나를 알아주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지요. 이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소.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대한 일입니다. 지금 글을 짓는 자들 중에 李獻吉(헌길 이몽양) 무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런 재능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내가 어릴 적부터 문장을 익혀 만사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제야 마침내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된 듯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북을 치고자 하니,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루고 左丘明과 司馬遷과 더불어 천 년 후에도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왕생께서도 그러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5년간 종종 내 이야기를 언급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미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저 왕세정이 諸賢들을 쫓아 이 형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지요. 이로부터 젊은이들 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⁹⁾

이반룡은 왕세정에게 자신의 문장론을 설명했는데, 즉 문장으로 불후의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며 그의 문학관은 李夢陽의 학설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반룡은 시문을 논할 때, 시는 당나라 大曆 이전,

8) 周頴, 《王世貞年譜長篇》, 105-106쪽.

9) 李攀龍, 《滄溟先生集》권16, <送王元美序>, “先是, 濮陽李先芳亟爲元美道余。及元美見余, 時則稠人廣坐之中, 而已心知其爲余, 稍益近之, 即曰: ‘文章, 經國大業, 不朽盛事。今之作者, 論不與李獻吉輩者, 知其無能爲已。且余結髮而屬辭比事, 今乃得一當生。僕願居前先揭旗鼓, 必得所欲, 與左氏、司馬千載而比肩。生豈有意哉? 蓋五年於此, 少年多時時言余。’ 元美不問也, 曰: ‘世貞奈何乃從諸賢大夫知李生乎?’ 自是之後, 少年乃願愈益知余。” 《文淵閣四庫全書》集部 권217, 369쪽.

문장은 西京 이전, 즉 漢代 이전의 古文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정 28년(1549)에 왕세정은 이반룡을 통해 謝榛(1495~1579)을 알게 되었는데, 사진은 관직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문장에 재주가 있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반룡과 사진은 그전부터 시문을 창화하며 서로 시문의 성취와 재능을 독려하는 사이였다. 왕세정은 그해 2월 처음으로 이반룡을 방문하여 함께 음주했으며, 그때 謝榛도 함께 자리하였다. 그리고 그해 중추절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詩會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진은 55세, 이반룡은 36세, 왕세정은 24세의 나이였다.¹⁰⁾

그리고 가정 29년(1550)에 宗臣(종신, 1525~1560), 梁有譽(양유예, 1521~1554), 徐中行(서중행, 1517~1578), 吳國倫(오국륜, 1524~1593), 魏裳(위상, 1520~1574), 張佳胤(장가윤, 1527~1588), 余曰德(여왈덕, 1514~1583) 등이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중에 종신이 刑部에 임관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가정 30년(1551)에 양유예와 서중행, 여왈덕 역시 刑部에 임관하였다. 이로써 刑部에 재직 중이던 왕세정, 이반룡 등은 자연스럽게 새로이 형부에 임관한 종신, 양유예, 서중행, 여왈덕 등의 문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이반룡을 비롯한 刑部 소속 동료 문인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며 본격적인 詩社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시인 사진까지 더불어 詩社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거나, 시문을 창작하고 품평하며 북고주의 문학론을 공유하였으니, 이때부터 소위 ‘後七子’ 모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졌으며 문학 동맹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¹¹⁾

가정 31년(1552) 왕세정은 刑部에 머물면서 李攀龍, 謝榛, 梁有譽, 徐中行, 宗臣과 함께 ‘六子之盟’을 결성하였다.¹²⁾ 이들은 하나의 문학 공동체

10) 徐朔方, 〈論王世貞〉, 43쪽.

11)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11-130쪽.

12) 명대 後七子の 구성원은 초기에 사진, 이반룡, 서중행, 양유예, 종신, 왕세정의 6인이었다가 이후에 사진이 배제되고 吳國倫(오국륜)이 영입되면서 다시 6인 체제가 되었다. 후에 양유예가 이른 나이에 병사하였고 余曰德(여왈덕)과 張佳胤(장가윤)이 합류하면서 이반룡, 왕세정, 서중행, 종신, 오국륜, 여왈덕, 장가윤의 7인이 바로 ‘七子’라고 지칭되었다. 칠자라는 개념은 청대 朱彝尊(주이

를 형성하여 대체로 이반룡의 문학관을 따랐으니, 문장은 西京 이전의 古文을 따르고 시는 大曆 이전의 詩風을 본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반룡과 왕세정이 포함된 시사는 하나의 결속된 문학 공동체로서 공통된 문학관을 공유하였다.¹³⁾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쓴 편지 〈우린 이반룡에게[李于鱗]〉의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왕세정과 이반룡의 북고주의 문학관이 형성되던 시기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왕세정은 가정 31년(1552) 7월경에 決江淮獄의 임무를 받아 江淮 지역의 옥사 소송을 처리하러 파견되었으며, 그 길을 따라 고향인 吳中 지역에 잠시 귀향하였다.¹⁴⁾ 왕세정은 과거에 급제하여 집을 떠난 뒤 5~6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이미 경사에서 여러 문인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문학 이론을 접한 왕세정은 吳中 지역 문인들과 담화하면서 의견 차이를 느꼈고 자신의 소회를 편지로 써서 이반룡에게 토로하였다.

陳生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대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화려하고 장엄하여 더 말할 필요도 없으니, 저는 이를 평생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진생에게서 받았는데 그는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런가 등의 말을 하는데 맞하지 않았습니니다. 당신께서 비판한 晉江 王慎中(왕신중)과 毘陵 唐順之(당순지) 두 학자 및 그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며 명성을 얻었으나, 이는 단지 그들의 영향을 받고 명성을 좇을 뿐, 그 학문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들도 반드시 꾸준하고 깊게 연마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吳 지역의 학자들은 누구나 앞선 선배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며, 단

준)과 陳田(진진) 등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확산되었지만, 사실상 이 7명의 문인이 한 번에 다 모인 적은 없으므로 ‘칠자결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李玉檢, 〈明後七子結社考辨〉, 102-103쪽 참고.

13)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27쪽 참고. 이반룡과 왕세정의 북고주의 문학관의 형성과 관련된 언술은 왕세정의 〈贈李于鱗序〉와 《예원치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4)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40-141쪽.

지 이들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니, 이들과는 한나라 이전의 학문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진강과 비릉 두 학자와는 학문적 취향이 다르지만, 또한 헌길(獻吉)을 맹렬히 비난하며, “헌길 이몽양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글은 사마천과 두보의 글을 그대로 훔친 것에 불과하며, 단지 문학계의 도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크게 분노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논쟁할 가치도 없어 그저 비웃고 말았습니다. 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학적 소양과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제가 어찌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헌길이 정말로 사마천과 두보의 작품을 베꼈다 하더라도,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오중의 문인들이 사마천과 두보를 존경하지만, 사마천과 두보는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깐요. (중략)

저는 학업을 마친 후 지금까지 燕, 齊, 吳 지역을 네댓 차례 오갔습니다. 수도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한 지도 6~7년이 되었지만, 결국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오직 우리를 포함한 몇 친구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다만 우리를 가장 좋아했고 우린도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천하를 두루 다니고 나서야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넓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참으로 좁은 것도 알게 되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처신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¹⁵⁾

왕세정은 잠시 귀향한 吳中에서 문인들과 詩文을 논하면서 이반룡의 복고주의 문학 사상을 알리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학관은 이미 吳中 문인들이 숭상하고 있던 唐宋派의 풍조와 맞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15) 王世貞, 〈李于鱗〉 제2수, “會陳生, 始得拜足下文也, 其辭瑰偉麗特亡論, 僕守之可遂終身矣. 文致自陳生, 生不識, 謂爲何等語, 此亡怪也. 足下所譏彈晉江、毘陵二公及其徒, 師稱而人播, 此蓋逐影響, 尋名迹, 非能心視其是也. 破之者亦非必輪攻而墨守, 乃甚易易耳. 吳下諸生則人人好褒揚其前輩, 燥髮所見, 此等便足衣食, 志滿矣, 亡與語漢以上者, 其人與晉江、毘陵固殊趣, 然均之能大罵獻吉, 云獻吉何能爲, 太史公、少陵氏爲渠剽掠盡, 一盜俠耳. 僕恚甚, 乃又笑之不與辨. 嗚呼, 使少有藻偉之見, 可以飾其說, 僕安能無辨也? 夫獻吉盜太史公、少陵氏, 而不怨也. 吳子輩尊二君子. 二君子不知也. (중략) 僕自結束以來, 還往燕、齊、吳之間, 凡四五. 居天子邦, 而友薦紳先生, 又六七載, 僅吾于鱗數子耳. 就數子中, 又僅吾于鱗. 于鱗, 僅吾耳. 行天下, 乃知天下大也. 夫行天下大, 乃又悲天下小也. 幸勉旃自愛, 毋易而身.” 《弇州山人四部稿》, 2916쪽.

오중의 문사들은 이몽양이 한대의 문장과 당대의 시를 표절했다고 비난하며 “盜俠”이라 조롱하였고, 왕세정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왕세정은 이반룡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과 공통된 의견을 가진 知己에 대한 그리움을 슬회하며 당송과의 이론과 오중 문학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왕세정이 비록 강남 출신의 문인이지만 북경에서 관리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문인들과 어울리면서 북고주의 문학론에 동조하게 되었고 특히 이반룡의 영향을 받아 진철자의 문학론을 존송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¹⁶⁾

2. 후칠자의 구성원

가정 32년(1553) 4월에 왕세정은 이미 문학 동료들인 謝榛, 李攀龍, 徐中行, 梁有譽, 宗臣을 기리는 〈五子詩〉를 창작하였다.¹⁷⁾ ‘五子’는 왕세정 자신을 제외한 詩社의 구성원들을 일컫는 것으로, 왕세정은 이들과의 문학적 교류를 시로 표현하고 서로 독려하며 유대감과 북고주의 문학 정신을 고취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반룡, 서중행, 양유예, 오국륜, 종신 역시 각각 〈五子詩〉를 지어 서로 창화하면서 문학적 결속력을 공고히 한 것을 볼 수 있다.¹⁸⁾

16)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40-141쪽.

17) 〈五子篇〉은 총 25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반룡, 왕세정, 서중행, 양유예, 종신의 다섯 사람이 각각 5편씩 창작한 것이다. 上海圖書館에 소장된 明代 宗書刻本 《宗子相集》 15권에는 이반룡, 서중행, 양유예, 왕세정 네 사람의 〈五子詩〉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반룡의 〈오자시〉는 사진 → 서중행 → 양유예 → 종신 → 왕세정의 순서이다. 그리고 서중행의 〈오자시〉는 이반룡과 같이 사진 → 이반룡 → 양유예 → 종신 → 왕세정의 순이다. 양유예의 〈오자시〉는 사진 → 이반룡 → 서중행 → 종신 → 왕세정 순서이고, 왕세정의 〈오자시〉도 사진 → 이반룡 → 서중행 → 양유예 → 종신의 순서이다. 『종자상집』 권4의 종신의 〈오자시〉에서는 다섯 사람을 사진 → 이반룡 → 서중행 → 양유예 → 왕세정의 순으로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서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31쪽.

18) 왕세정은 이후에도 〈五子詩〉, 〈廣五子詩〉, 〈續五子詩〉 등의 시문을 지었는데,

가정 32년(1553) 가을, 형부랑중으로 재임중이던 이반룡은 順德知府로 임명받고, 순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건으로 사진과 이반룡의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불화를 겪게 된 것은 아마도 사진이 북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順德知府로 재임 중인 이반룡을 찾아갔으나 이반룡이 그를 즉시 만나주지 못한 일로 시작되었다. 대신 이반룡은 얼마간의 돈을 사진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사진은 돈을 던져버리며 불쾌한 마음을 내비쳤다. 얼마 후 결국 이반룡을 만나게 된 사진은 이반룡이 건넨 돈을 받았고, 이반룡 또한 시를 지어 전송하는 마음을 표시하였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냉랭해졌다. 나중에 사진이 사람을 보내 후회하는 뜻을 전했으나, 이반룡은 감정이 풀리지 않은 탓인지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은 북경으로 돌아와서 이반룡이 지방에서 정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험담하였고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갔다.¹⁹⁾

왕세정은 이반룡이 지방 정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이반룡에게 이 일을 알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반룡은 왕세정에게 회신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였고 왕세정이 자신을 믿어주고 변호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이반룡이 순덕지부로 재직할 당시 왕세정에게 보낸 편지로서 <원미 왕세정에게 보내는 편지[與王元美]>의 제 1수의 내용이다.

나는 불행히도 유언비에 휘말렸는데, 그대는 나를 아껴주고 계속해서 나를 변호해 주었소. 마치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말이오. 이는 곧 그대가 나를 잘못된 사람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대는 예전부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었소.

나는 비록 성격이 완고하지만, 그래도 군국의 한 작은 관직을 맡아 지금은 관청에 얽매어 있는 처지이오. 그대 元美는 믿음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찌 伯樂을 자임하여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소?

자신의 문학적 동지들과 후배들을 독려하고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9)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57쪽.

세간에 언급되는 나의 다른 일들에 대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하오.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백성들은 얼마 안 되는 양식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황하의 물이라도 마시길 원한다니 말이오. 나는 저 廬至(노지) 부처처럼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지 않지만 나 역시 태수의 관직을 맡은 사람이오.

내 처지를 보시오. 붉은 수레를 타고 들어와 관청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도 유언비어를 피할 수 없구려. 내가 어찌서 날마다 길을 쫓아다니며 절을 하고 예를 지키겠소? 나는 머지않아 관인을 풀고 관직에서 물러날 것이오. 이는 이미 정해진 일이오. 이 조그마한 고을에서 해가 뜨면 업무를 보고, 만나절도 안 되어 문을 닫고 쉴 수 있소. 하지만 지금 燕趙 지방 남북 천리의 땅에서는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도적들이 들끓으며, 대낮에도 행인을 습격하는 자들이 있소. 심지어 邢襄 지역에서도 미친 개 같은 악한들이 날뛰고 있소. 그런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겠소?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어찌 관리의 역할이 싫다고만 하겠소? 그대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소? 오늘 나는 오직 그대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오.²⁰⁾

왕세정은 이반룡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 실상을 공개하며 사진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보낸 편지 중 〈우린 이반룡에게[李于鱗]〉 제6수에는 이반룡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진을 엄중하게 비난하고 이반룡을 두둔하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 사진 형은 이번에 무슨 명분으로 온 것인가요? 낭패스러운 실책이나 저지르는 예순이 다 된 늙은이가 어찌 빨리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다섯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경박하게도 자신은 상식 있는 사람

20) 이반룡, 〈與王元美〉 제1수, “某不幸中於流言, 足下愛我, 乃能縷縷爲語, 如汚己者, 是猶不以某爲非人. 足下曩固慮及於此, 僕雖偏彊, 亦已郡國一吏矣. 方且局促曠下也, 元美自信, 僕豈能以伯樂望衆人, 即問及僕它事, 某一不敢知, 某情民苟升斗粟糊口, 即飲河之願, 不欲爲廬至長者. 僕亦名爲守哉. 跡僕所御一朱轆而抱關者爾, 猶尚不免於流言. 胡爲爾日譎然磬折路旁, 早晚解綬去已定矣. 一州如斗大, 日出而視事, 即不崇朝閉閣臥也. 燕趙南北殆千里, 人相食, 盜賊嘯聚, 白日出御人, 即邢襄之間, 有犖犬, 我輩何謂無益, 時理亂, 何謂於吏治厭薄也. 足下不示, 僕誰復言者. 今僕亦獨爲足下言爾.” 《滄溟先生集》 권30, 563쪽.

인 척하면서 우린 형님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함께 모여서 연회를 즐기고 시부를 읊을 때의 의리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니, 참으로 무심한 사람입니다. 만약 虬髯生(규염생)을 만난다면 그의 왼쪽 눈도 도려내질 것입니다! 예전의 벼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술 한 잔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 보내는 글과 10수의 絶句를 마 무리하려 했지만 정신이 흐릿합니다. 그래도 하인 편에 편지를 보내려 하는데 아직 다 쓰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한을 주면 반드시 완성해서 보내겠습니다.²¹⁾

왕세정은 사진이 이반룡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심지어 虬髯生과 같은 험객이 있다면 원래 한쪽 눈의 시력이 없었던 사진의 다른 눈도 도려낼 것이라고 험하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왕세정은 이반룡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컸기에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면서 이반룡을 비호하고 두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세정이 이반룡을 비호하는 목소리가 크자 문인들은 모두 사진의 행동에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사진을 배척하고 이반룡을 지지하였다. 이로 인해 사진은 북경에서 점점 고립되었다.²²⁾

가정 32년(1553) 겨울에 사진은 이반룡을 찾아왔고, 이반룡은 <회위절 사무진서(戲爲絶謝茂秦書)>라는 작품을 쓰고 시를 주고 받는다.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쓴 <원미 왕세정에게[與王元美]> 2수에는 사진이 찾아왔으나 이반룡은 사진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고 사진은 위축된 마음으로 이반룡을 다시 떠나간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茂秦(무진)이 직접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생각

21) 王世貞, <李于鱗> 제6수, “……老謝此來何名, 狼狽失策, 六十老翁, 何不速死, 辱我五子哉! 且不輕用常人態責于鱗, 彼不記遊燕集中力, 真負心漢, 遇虬髯生, 當更剋去左目耳! 生平交好, 叛潰殆盡, 僕唯仗醇酒一澆磊塊, 要成送兄文及十絶, 情思昏昏, 且遂欲從吏人牘, 不及作, 少緩數日, 必無負也.” <弇州山人四部稿> 권 117, 2920쪽.

22)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58쪽.

하였소. ‘태행산’에서 지은 여러 편의 시를 논하는데, 나는 그가 이미 겹을 먹고 예전의 완고함이 사라진 것을 보고 조금 재미있다고 여겼소. 설달이 지난 후, 그가 郡齋(군재)로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조금도 싫어하거나 박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꾸짖듯이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소식이 전혀 없어서 오래도록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인데, 어찌 그것을 다시 비난하시오?”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대와 명경 오국륜이 보낸 은근히 비판하는 글들을 조금 꺼내어 보여주니, 그는 곧바로 말문이 막혀서 가버렸다오. 그 날 나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소.²³⁾

이 문장은 가정 32년 겨울 사진이 찾아왔을 당시의 일을 왕세정에게 알려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사진이 다시 이반룡을 찾아갔을 때 이반룡은 <장난 삼아 사진과 절교하는 편지[戲爲絕謝茂秦書]>를 지어 주었으며 이 편지를 여러 문인들에게도 보여주었다.²⁴⁾

왕세정은 문단의 시사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여 사진을 시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吳國倫을 새롭게 영입하였다. 그 후에 이반룡은 <五子詩>에서 사진의 이름을 삭제하고, 오국륜으로 바꾸어 써넣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전해지는 이반룡의 《滄溟先生集》 권4 <五子詩>에서 열거된 ‘五子’는 왕세정 → 오국륜 → 종신 → 서중행 → 양유예의 순서로 되어 있다. 왕세정의 《弇州山人四部稿》 권14 <五子篇>의 명단은 이반룡 → 서중행 → 양유예 → 오국륜 → 종신의 순서대로 수록되었다. 앞서 주석 17에서 살펴본 《宗子相集》 15권에 수록된 이반룡의 <五子詩>가 사진 → 서중행 → 양유예 → 종신 → 왕세정의 순서였고 왕세정의 <오자시>도 사진 → 이반룡 → 서중행 → 양유예 → 종신의 순서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순서는 사진이 배제되고, 오국륜이 새롭게 포함된 이후에 변화가 생긴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진을 배제하고 오국륜을 포함시킨 것 외에도,

23) 李攀龍, 〈與王元美〉 제 2수 “茂秦窮來歸我, 我猶尚哀憐之, 即論太行諸篇, 吾見其膽破無復向時倔彊氣, 爲可喜, 蠟後過郡齋, 見某無少厭薄意, 即自咄咄向家人語云, 大息久不報, 何能重爲詆焉. 某稍舉足下與明卿微辭, 則吞聲行之. 日復解顏” 《滄溟先生集》 권30, 563-564쪽.

24)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67쪽.

각 인물을 묘사하는 문구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즉 각 인물들이 문학 동맹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순서가 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사진은 비록 ‘육자연맹’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후에도 이반룡, 왕세정을 포함한 시사 문인들과 시문을 창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이반룡이 사진을 어느 정도 용서하고 두 사람이 화해한 후에 여전히 함께 어울리며 시문을 주고 받았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Ⅲ. 이반룡의 귀향과 교유

이반룡은 가정 32년(1553)부터 가정 36년(1557)까지 지방관 생활을 하였으나 큰 병이 나서 귀향을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가정 36년(1557)부터 다시 관직을 제수받은 융경 원년(1567)까지 고향인 제남에서 10년 가까이 전원생활을 즐기고 시문 창작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왕세정과 여러 문인들과 시문을 주고 받으며 활발한 문학 교류 활동을 하였는데, 아래에서 주로 왕세정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이반룡의 처지와 그간의 소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방관 생활과 귀향

이반룡은 가정 32년(1553)부터 가정 35년(1556)까지 順德知府로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²⁶⁾ 당시 이반룡이 자신의 관료 생활과 동료 문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왕세정에게 보낸 편지가 <원미 왕세정에게 보내는 편지[與王元美]> 제4수이다.

25)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52쪽.

26)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69쪽.

별일 없기를 바라오. 河間 관저에서 밤에 누워 있자니 누가 내 등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겠소? 中丞公은 하늘이 내린 인재이신데, 예전에 몸을 낮추어 나를 가르쳐 주시길, “자네의 재능은 옛사람들을 뛰어넘으며, 元美와 함께 대업을 이루리라 기대할 만하니, 천 년에 한 번 나올 인재들이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한들, 명나라가 다시 문장으로 흥한다면 실로 공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네.”라고 하셨소. 실로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소? 邢州의 태수 직무는 장계도 없고 감옥도 비었으며 아전들은 상사에게 열 건도 갖추어서 보고하지 못한다오. 상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고 있을 뿐이오. 그러니 지금 하간에서 관직 생활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없겠소?²⁷⁾

이반룡이 河間, 즉 順德에서 재직할 때 이 왕세정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지방관이 되어 홀로 떨어져 있는 처지로부터 친구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왕세정과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지방관으로서의 고충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왕세정과 자신이 받았던 칭찬과 기대를 회고함으로써, 왕세정과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두 사람의 문학적 유대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반룡은 순덕지부의 임기를 마치고 경사로 돌아와 순덕지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정 35년(1556) 9월에 陝西按察司副使 提督學政으로 승진하여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10월에 왕세정 역시 山東按察使司副使 兵備青州로 임명을 받고 청주로 부임하게 되었다.²⁸⁾ <원미 왕세정에게 보내는 편지[與王元美]> 제5수에서 이반룡은 왕세정이 청주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떨어지게 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자신이 목도한 섬서 지역의 낮은 풍경에 대한 묘사를 담아내었다.

27) 李攀龍, <與王元美> 제4수, “無恙. 河間邸中夜臥, 誰爲搔背癢也. 中丞公自天授, 則辱諭‘僕才冠古, 與元美所期大業者, 千載矣. 雖流俗姍笑乎, 然更明興有文章者, 實自公等始也.’ 不已知言者哉. 邢州守臣無狀, 囹圄輒空虛, 屬吏亦不能具十獄上使者. 使者據案操鉛槧, 崇朝力爾. 今豈無班班河間作苦邪?” <滄溟先生集> 권30, 564쪽.

28)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77쪽.

서쪽으로 가면서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못했기에, 마침내 사람을 보내 원미 왕세정에게 문안을 전하게 되었소. 어찌 이를 두고 長者의 수레마귀를 더럽히는 행위라 하겠소? 靑州의 전쟁을 함께 논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마는 이것이 원미에게 무슨 해가 되겠소? (중략) 눈보라가 관문을 넘어 들이치고, 나는 華山을 지나며 멀리서 하늘을 찌르는 세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았소. 흰 구름이 실처럼 엉키고 흩어지며 떠다니고 있었소. 그 아래의 빼어난 경치는 감탄을 자아냈으나, 長安과 咸陽은 여전히 적막하고 쓸쓸하였소. 다만 漢나라 황릉이 석양 속에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소. 돌아보니 서북쪽은 온통 작은 언덕과 흩더미뿐이었소. 空同山(공동산)과 笄頭山(계두산) 지역은 험난하고 거칠었으며, 세상과도 다른 듯하였소. 그러나 이곳은 이미 변방 가까운 곳이라, 황량한 분위기가 가득하고, 秦과 隴西 지방이 전란의 여파로 크게 흔들렸소. 오늘날까지도 백성들은 완전한 집조차 갖추지 못했고, 벼슬아치들조차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소. 기와를 올린 집이 있어도 갈대 잎으로 기워서 겨우 잠을 청하는 형편이오. 나 또한 어린 자식들과 첩들과 함께, 마치 천막 위의 제비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오.²⁹⁾

이 편지에서 이반룡은 청주로 가게 된 왕세정에 대한 안부를 묻는 한편, 섬서안찰사부사로 부임하게 되어 섬서 지역에 도착한 후에 전란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황량한 섬서 지역의 생경한 풍경을 목도한 것과 고향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반룡은 풍토가 낯설은 섬서 지역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는지 가정 36년(1557)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질에 걸리고 종창이 크게 나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몸이 점차 쇠약해진 이반룡은 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다. 마침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반룡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귀향을 결심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했다. 당시

29) 李攀龍, 〈與王元美〉 제5수, “某且西所不遺一字書者, 則已屬駒伏謁元美前, 又豈謂負郭巷復辱長者車轍也. 靑州之役, 誰適與謀, 然何害其元美, (중략) 雨雪入關, 道經二華, 遙見三峯, 插天白雲, 如練往來, 其下秀色射人, 長安咸陽即復蕭索, 徒見漢家諸陵返照間而已. 回中西北見皆丘塚, 空同笄頭, 硜硜自異, 然已近塞風氣荒涼, 大率秦隴震蕩之餘. 至今室家尚無完堵, 一二僚友人人自危, 雖有華櫬緝蘆而寢. 某與一二孺子妾, 方如幕上燕矣.” 《滄溟先生集》 권30, 564-565쪽.

에 외직 관리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면 다시 기용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반룡의 재능을 중시한 吏部에서는 특별히 귀향을 허락하였다.³⁰⁾

이반룡이 귀향할 무렵인 가정 36년(1557) 무렵 왕세정은 아직 兵備靑州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쓴 〈이우린에게 쓴 편지[李于鱗]〉 15수부터 18수까지는 이반룡이 전해준 섬서 지역의 정황을 담은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보인다. 그 중에 16수를 살펴보면, 이미 이반룡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토로한 것에 대해 왕세정이 만류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泗(사)가 편지를 전하면서 〈登華〉 시 여러 편도 함께 받았습니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니, 마치 玉女峰의 경치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연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합니다. 그대의 시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封禪에 대한 기록도 應劭의 《漢官儀》 이후로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천고의 제일 명문이라 할 만하군요! 그런데 龍城生의 평론은, 어찌 다섯 살 어린아이의 말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중략) 형님이 편지에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두 관료에게 사직을 청할 계획인데, 만약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직접 사직서를 올릴 것이라고 했지요. 泗(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신변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형님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은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형님의 결정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부인께서 아직 건강하시고, 형님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니, 당연히 봉록을 받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지요. 다행히 지금 맡은 직책이 자유로워서 엄매이지도 않는데, 어찌 그리 급히 사직하시려는가요? 歷山의 땅은 척박한데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간 다 해도, 결국 도회, 감사, 태수들 사이에 끼게 되면 끊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형님이 제대로 받을 갈며 은거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요?³¹⁾

30)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81-82쪽.

31) 王世貞, 〈李于鱗〉 제16수, “泗來, 則攜登華諸篇至也. 一再讀之, 覺玉女群峰, 窈窕在目, 蓮花芬襲人也. 毋論足下詩, 即記自應劭《漢官儀》敘封禪而上無似者, 千古第一記耳. 龍城生, 不亦五尺童語哉? (중략) 足下書盛欲歸, 雲請之兩臺, 不可, 則欲自投劾, 泗亦雲. 然僕六尺身, 不能自了, 在人鼻息間, 安能與足下出處?”

왕세정은 이반룡의 퇴직을 만류했지만 연이어 이반룡이 질병에 시달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던 듯 하다. 이어지는 17수-18수의 편지에서는 이반룡의 병환을 걱정하며 곧 섬서 지역으로 가 볼 계획을 세우고 있노라고 전하고 있다.

2. 은거 생활과 시문 창작

섬서에서 돌아온 이반룡은 문을 닫고 손님을 맞이하지 않으며 권력자들과의 교류를 끊었다. 이반룡은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 호수와 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白雪樓를 짓고 그곳에서 주로 생활했다. 백설루는 이반룡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는 이곳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다. 백설루를 중심으로 보낸 이 기간은 이반룡의 시문 창작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당시 그가 쓴 시문이 《창명선생집》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의 시문집은 처음에 《白雪樓集》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가정 42년(1563)은 이반룡이 은거한 지 6년째 되던 해인데, 이 해 10월에 魏裳이 이반룡을 대신하여 《백설루시집》을 출판해주었으므로 이반룡이 시를 보내어 감사했다는 내용이 보인다.³²⁾ 아래에서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보답하는 편지[報元美]>에서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백설루시집》을 출판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제 늙기를 좋아하고 개와 말처럼 노쇠하였으니, 어찌해야 할지? 병이 점점 심해지니 기이할 따름이오. 나뉘진 구멍과 골짜기도 스스로 메워지는데, 어찌하여 이 육신은 나를 이토록 괴롭힐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려. 그것도 그저 한때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결국 꺾끗한 뼈대만 남을 것이오.

雖然，竊謂足下非計也。太夫人尚壯，而足下貧，須祿養。今幸爲博士師，差自強，不受濕束，胡遽厭罷也？歷山之田瘠，而諸罷歸者，介於都會、監司、守相之間，不良止也，則未足以辱足下耕。”《弇州山人四部稿》 권117, 2926쪽.

32)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94쪽.

최근 馮(풍)군이 그대가 보내준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잠들고 일어나 생활하는 모습들이 편지에 가득했소. 東甌의 물가와 갈대밭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왔구려. 그렇지만 廣陵 사람 종신과 南海 사람 양유에는 이미 흙먼지로 변해버렸고,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며 곁에서 시중들던 이들도 모두 떠나갔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뿐이요. 바라기는 마을에 다시 큰 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다행히도 그대는 내가 보답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듯하오. 그대의 시 네 수는 기개가 웅장하고 고금을 꿰뚫는 걸작이니, 실로 빼어난 시문이요. 나는 빨리 감상하고 싶어 곧바로 펼쳐 읽었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소. 나는 그 시집을 좌석 옆에 두고, 그대가 시를 낭송할 때 매번 감탄하며 손뼉을 치고 주위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했다오. 그리고 곧 비단 한 필을 내어서 석실에 부분을 두려고 하고 있으니, 그대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오.

내가 조잡하게 새긴 글씨들은, 魏使君이 훌륭한 책으로 만들어 준 덕분에 비로소 조금 다듬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그대와 같은 고명한 분들의 검토를 거치지 못했기에, 결국 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소. 明卿 오국륜은 오랫동안 州郡에 머물며 이미 관직에 익숙해졌건만, 운명이 순탄치 않아서 조정의 원로들이 그를 바라볼 때 하찮은 給事보다도 못하게 여기니, 참으로 한탄스럽소. 子與 서중행도 나이가 들어서 벼슬길에서 머뭇거리며 작은 녹봉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소. 권세가들은 눈앞의 일만을 신경 쓰니 어찌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거나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소. 혹한의 시기에, 그대가 입은 옷은 낡지 않았겠지요?³³⁾

이 편지는 대략 《백설루시집》이 출판된 가정 42년(1563) 이후인 가정

33) 李攀龍, 〈報元美〉 제1수, “乃不佞即善臥, 然犬馬之齒及矣. 是何. 俞疾俞奇也. 溝壑分自填, 何至使此物苦我狀. 不可忍視者. 彼一時也. 炯炯之外, 傲骨一具耳. 屬得小馮君所致足下書, 輒以伏枕起色盈牘. 東吳孤蘆中尚有斯人, 而廣陵、南海化為糞壤, 自春徂秋, 其在侍者, 莫不邁己. 相幸不知轉復於邑一大事也. 足下蓋不獨疑不佞無報, 章惟四詩, 雄視古今, 佳集絕唱, 亦欲速取鑒賞, 旋自沾沾耳. 頃已裝置座右, 想像足下歌態, 每爲抵掌旁若無人, 再奉尺帛稱副石室. 足下何慮焉. 拙刻自魏使君之厚成書, 始示筆削不逮也. 未經公輩, 終恐不厭余意矣. 明卿久州郡, 亦既習宦, 乃滇命中沮, 元老視之, 顧不如給事. 時子與遲暮遂循, 出狗五斗, 當路顧爭爲汲雪事, 又安可知人, 又安可量哉. 沍寒次, 君妾被無敵乎.” 《滄溟先生集》 권30, 566쪽.

43년(1564) 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반룡의 나이는 52세로 자신이 예전에 비해 노쇠하여 병이 낫지 않고 더욱 심해짐을 염려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이반룡은 그래도 왕세정이 보내준 시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면서 왕세정의 문학적 재능에 크게 찬탄하고 또한 魏裳이 자신을 위하여 《백설루시집》을 대신 출판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한편의 문장에는 또한 후칠자들의 불운한 명운에 대한 이반룡의 한탄이 서려 있다. 이반룡은 함께 시문을 창화하였던 남해 사람 양유예가 가정 34년(1555)에 병 들어 사망하였던 일과 광릉 사람 종신이 가정 39년(1560)에 복건안찰사제학부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젊은 시절 함께 시문을 창화하며 즐거움을 나누었던 문학 동지들 중에 두 사람은 이미 저세상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 중에 왕세정은 부친이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후에 관직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그 외에 오국륜은 지방의 말직을 전전하고 있었으며 서중행은 가정 42년(1563)에 내사를 받고 무고를 당하여 河南汝寧太守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가 가정 43년(1564)에 掌路轉運判官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다시 江西徐州同知로 옮겨 갔으므로³⁴⁾ 이반룡은 오랜 벗들이 모두 흩어져서 유명을 달리 하거나 부친을 잃고 낙향한 것, 혹은 지방관으로 떠돌며 고생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후칠자가 이렇게 흩어지고 영락한 처지가 된 것은 당시에 조정에서 정권을 전횡하던 권력이 嚴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王世貞과 그의 동료들은 엄승에 반대하였던 충신 梁繼盛과 친분이 있었고 양계성이 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가 약과 먹을 것을 주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 일로 인해 왕세정은 엄승의 눈 밖에 났는데, 왕세정의 부친인 왕여가 왜구를 물리치며 공적을 세우자 엄승은 더욱 왕세정과 왕여를 경계하였다. 후에 엄

34)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95-96쪽.

승의 모략에 의해 결국 왕여는 무고하게 죽고 왕세정은 낙향하게 되었으며 이반룡과 왕세정이 주도했던 시사에 참여하던 동료 문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³⁵⁾

후에 명대의 간신으로 악명 높았던 嚴嵩이 죽고 明穆宗이 즉위하여 융경 원년(1566)이 되자, 이반룡은 다시 浙江按察司副使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浙江布政使司左參政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반룡은 河南按察使로 승진하여 재직하던 중에 모친상을 당하자 크게 상심한 나머지 자신도 병에 걸렸고 융경 4년(1570) 향년 5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왕세정은 소식을 듣고 知己를 잃은 슬픔을 못이겨 크게 통곡하였고 그를 위해 〈李于鱗先生傳〉, 〈祭李于鱗文〉을 쓰고 120韻에 이르는 〈哭李于鱗〉의 시편을 작성하여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반룡과 왕세정의 서신 왕래와 문학적 교유는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가정 28년(1549)부터 이반룡이 별세한 융경 4년(1570)까지 약 20여 년간 이어졌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혹은 낙향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기도 하였지만 편지를 왕래하고 서로 찾아가서 만나고 시를 창화하면서 나이를 초월하여 흥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知己가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문학적 교유를 이어가며 일생의 흥망성쇠를 서로 지켜보고 위로하였다.

IV. 왕세정의 귀향과 교유

가정 36년(1557) 왕세정은 靑州兵備副使가 되어 왜구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었고 가정 37년(1558)에는 《藝苑卮言》 6권을 완성하였다. 왕세정의 부친인 王忬(왕여)가 당시 명대 해안 지역을 약탈하던 왜구를 물리치며 큰 무공을 세웠고 가정 38년(1559)에는 왕세정의 동생 王世懋(왕세무)가 진사에 합격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해에 부친

35)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197쪽.

王杼가 灤河의 전투에서 실책을 범하자 곧 엄승이 모함하여, 왕여는 사형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다.

왕세정은 즉시 관직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경사로 달려갔으며, 동생 왕세무와 함께 날마다 엄승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면서 선처를 간청하였다. 엄승은 겉으로는 완곡한 말로 희망을 주는 듯했으나, 속으로는 왕여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고 왕여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왕세정과 동생 왕세무는 매일 길가에 꿇어앉아 고관대작들의 가마를 막고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은 엄승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서지 못하였다. 여비도 다 떨어진 왕세정과 왕세무가 잠시 고향에 다녀오는 사이에 부친인 왕여는 가정 40년(1561)西市에서 처형되었다. 형제는 슬픔에 빠져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며, 급히 경사로 와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인 兗州로 귀향하였다.³⁶⁾

1. 부친의 무고한 죽음

왕세정은 가정 38년(1559)에 부친 왕여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자 상소를 올려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고 마침내 윤허를 받아 해임되었다. 왕세정은 해임되자 곧 경사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고 슬프고 경황 없는 중에 이반룡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설명하였다. <우린 이반룡에게 보내는 편지[李于鱗]> 제19수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린, 우린 형님이여! 여기까지 말하니 어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지 않겠습니까? 대장부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으니, 두 편의 시에 담긴 깊은 뜻은 誇父가 해를 쫓듯 쉽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를 짓고 노래하는 것이 어찌 마음과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미 시를 짓고도 다시 화답할 기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보니, 결국 천고의 이별을 하는군요. 슬픈 노래로 울음을 대신할 수 있다지만, 깊은 분노와 울분이 가슴속

36)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222-240쪽, 《明史·文苑三·王世貞傳》 권287.

에 맺혀 돌덩이가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옥으로 된 결[玦] 하나와 기와로 만든 벼루[硯] 하나를 군자의 책상 위에 올립니다. 결은 결별[訣]이고,硯은 다시 만남[見]입니다. 이미 결별을 뜻하지만, 끝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³⁷⁾

왕세정은 부친의 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곧 부친을 救命하기 위해 경사로 올라가야 했으므로 이반룡과 만날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부친과 자신의 운명이 심상치 않으리라는 예감이었는지 이반룡에게 편지와 함께 결별을 의미하는 옥과 다시 만나길 기원하는 벼루를 보내며 작별의 편지를 남겼음을 볼 수 있다.

왕세정은 부친을 구하기 위해 경사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다니다가 가져온 여비도 떨어지고 부친의 옥사도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였으므로 고향에 잠시 다녀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가정 40년(1561)에 부친이 사형을 당하였다. 왕세정은 놀라서 다시 경사로 달려왔는데 그때의 황망하고 슬픈 심정을 다시 이반룡에게 편지로 적어 보냈다. 아래는 <우린 이반룡에게 보내는 편지[李于鱗]> 제19수의 일부이다.

燕京에서 식구들이 많아, 재산과 곡식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의 옥사(獄事)에 조금 말미가 생기자 나에게 남쪽으로 돌아가서 아침저녁으로 빠듯한 삶에 계획을 세우라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앙이 다시 일어났고 곧이어 뜻밖의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결국 연일 북쪽으로 향하며 길을 가면서도 계속 소식을 물으면서 나아갔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군요.

37) 王世貞, <李于鱗> 제19수, “于鱗, 于鱗, 興言至此, 腸不寸斷? 丈夫窮矣, 二章比興之微, 非夸父可逐, 裁篇詠言, 能無關於方寸? 業已置之不復和, 既念吾二人, 遂判千古. 悲歌可以當哭, 幽憤鬱滯, 安爲留之胃腹間作磊塊耶? 其不佳固耳. 玉玦一, 瓦硯一, 以奉君子衣几之御. 玦, 訣也; 硯, 見也. 既以爲訣, 終願相見!” <龔州山人四部稿> 권117, 2928쪽.

동생이 형님의 편지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친구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서 마치 변치 않는 金石처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여섯 편의 시가 함께 있었는데, 《詩經》의 〈風〉과 《楚辭》의 〈離騷〉를 따라서 그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어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저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시니, 이 편지를 품고 죽어도 한이 없었습니다. 태부인께서는 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 리를 넘나드는 세상의 변화가 날로 심해지니, 집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³⁸⁾

왕세정이 얼마나 황망한 심정으로 쓴 편지인지 그 가운데는 절박하고 괴로운 심정과 함께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심정까지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불행 속에서도 이반룡이 보내준 위로와 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라고 하겠다. 왕세정과 그의 동생 왕세무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사에서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앞친데 덮친 격으로 누이마저 상심한 나머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상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반룡은 위문하는 편지를 보내 크게 낙심한 왕세정을 위로하였다.

元美가 삼 년 동안 고난 속에 시달리다 마침내 이런 지경이 되었구려. 천 리 길을 달려 선친의 영구 앞에 도착하여 곡을 올리고 조문하였는데, 이러한 슬픔 속에서 어진 누이 또한 세상을 떠나다니요. 보건대, 가문이 점점 쇠락하여도 더욱 스스로를 아껴야 합니다.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고 노모와 어린 동생의 마음까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선친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어그러지고 영웅과 현인들은 탄식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38) 王世貞, 〈李于鱗〉 제20수, “燕中食指繁, 桂玉行盡. 家大人用缺少紆, 責僕南還, 拮据旦夕之計. 不謂抵家風火未定, 旋中非常之耗, 併日而北, 且詢且前, 方寸蝸磔. 度河知有宏貸, 始敢稱人. 然氣力憊, 無復餘耳. 家弟出足下囊中書, 備友朋之旨, 金石鏗然. 又詩六章, 規〈風〉矩〈騷〉, 靡所不致. 即令他人讀之不自已, 何況僕哉? 足下念我如此, 持此而死可也. 太夫人萬福, 千里騰蹕日異, 於杜門爲佳耳.” 《弇州山人四部稿》 권117, 2928쪽.

의 도리가 어찌 완전히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³⁹⁾

이반룡은 편지에서 왕세정이 부친의 죽음에 또한 누이의 죽음까지 겹쳐서 큰 환란을 겪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왕세정이 더욱 스스로를 아끼고 건강을 챙길 것과 남은 노모와 어린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왕세정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2. 吳中의 생활

고향으로 돌아온 왕세정은 다시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가문을 돌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고향의 산수를 둘러보며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고향에 돌아온 지 5년 쯤 지난 후인 가정 45년(1566) 왕세정은 집 근처에 小祇園(소지원)이라는 정원을 건축하였고 친구들이 방문할 때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곤 하였다. 가정 45년(1566) 왕세정이 소지원을 건축하고, 그곳에 누각을 지어 불경과 도가의 경전을 수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반룡은 시를 지어 기념하고 편지를 보냈다.⁴⁰⁾

나는 매일 그대와 小祇園에서 맑은 마음으로 재계하며 학질을 피하고, 앉아서 名理를 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는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있소? 海岱 지역에서는 호탕하게 술을 마시며, 마치 아무도 없는 듯 행동하다보니 그대와 헤어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소. 西郭의 茵馮臺(은봉대)에 올랐을 때는 마치 세상 위에 있는 듯 황홀한 모습이었지요. 元

39) 李攀龍, 〈答元美〉 제2수, “蓋元美三年喪體, 拮据既已至此, 奉先君子數千里抵殯, 哭吊紛紜, 重以賢妹捐館舍, 在疚可知. 骨肉凋殘, 轉宜自愛. 一失慰藉, 不淺慈母弱弟之情, 及非先君子遺命. 天道舛薄, 豪賢扼腕, 生人之理, 何可都絕?” 《滄溟先生集》 권30, 569쪽.

40)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104쪽.

美는 앞에 서서 휘장을 젖히고 사방을 둘러보곤 했으니, 떠오른 달빛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끝없는 회상이 이어질 뿐이오.

천고의 기쁨을 오직 그대만이 알아줄 것이오. 이제 나는 泗(사)를 보내어서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려 하니, 몇백 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레를 물고 가도록 하는 것은 오직 그 때문이랴오. 내가 어찌 그대에 대한 답신을 얻을 수 있겠소? 그대의 여러 누대에 대해 적어주고, 바라건대 하인 하나에게 맡겨서 우리집 泗(사)와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대가 나를 위해 일에 더 마음 써주실 것이라 믿소.⁴¹⁾

왕세정은 가정 45년(1566) 8월에는 宜興에 유람하러 갔으며, 長興을 들러서 서중행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오중으로 돌아온 후에는 함께 어울리며 지었던 시문을 모아서 《陽羨諸遊稿》를 만들었고, 張鳳翼이 서문을 써주었다. 이 무렵 梁辰漁가 왕세정을 찾아와서 자신의 시를 보여주며 인사하였고, 양신어는 이후에 이반룡을 찾아가서 왕세정의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반룡은 왕세정의 《양선제유고》를 서중행으로부터 얻어서 읽어보았고 이에 대한 감상을 적어 왕세정에게 편지로 전하였다. <원미 왕세정에게 보내는 편지[與王元美]> 11수에 관련된 내용이 전한다.

이전에 子與 서자행이 한 번 소개해줘서 그대가 陽羨에서 유람하며 쓴 원고를 읽을 기회가 있었소. 그러나 곧 떠날 시간이 임박하여 답장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여 편지를 보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徐 안찰사가 편지를 보내왔소. 善卷洞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음악 같은 곳이오! 하지만 나는 지병이 다시 도져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오. 당연히 신발 한 짝을 잃더라도 찾아가야 하겠지만 지금의 나에게 조금도 위로가 안될 것 같소. 元美가 팔짱을 끼고

41) 李攀龍, 〈與王元美〉 제9수, “日爲候足下者小祇園, 清齋辟瘴, 坐談名理, 孰與相視。海岱之間, 雄飲盡石旁若無人也。遂不知別時作何狀, 既抵西郭茵馮之上, 恍忽拍浮之態。元美在前, 褰帷四顧, 月出之光, 耿耿流思耳。千古一快, 唯足下念焉。今遣僕泗追謝足下, 不遠數百里命駕者, 是役也。不佞敢忘所以圖報乎。奏記諸臺, 幸假一掾屬, 與僕泗共之。恃足下爲代益依依於此。” 《滄溟先生集》 권 30, 566쪽.

탄식한 문장들은 桓文公의 패업처럼 성대하구려! 이것은 제나라 연맹의 맹주에게 바치는 말이오. 그대는 자신을 더욱 아끼고 식사를 잘 하시오.

梁伯龍의 말투는 단순히 화려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소. 그는 나를 두고 내가 다시 장강을 건너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그대 형제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소. 子與의 근래의 원고는 풍격이 올라간 듯 한데 그가 관직을 옮긴 때문일까요? 다만 明卿 오국륜의 글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오. 북방 변경은 황량하여 태부인에게 드릴 예물도 마련할 수가 없소. 털가죽을 바구니에 채운 것은 그대의 동생인 敬美 王世懋(왕세무)를 위한 것이니, 하나 꺼내어 쓴다면 벼슬길에서 공부할 때 나쁘지 않을 것이오.⁴²⁾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세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친구들과 유람을 다니게 된 것에 대해 안심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또한 왕세정과 시문을 주고 받으며 왕세정의 문장이 여전히 격조 있고 더욱 훌륭해진 듯하다는 즐거운 감상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세정의 동생인 왕세무에게 보내는 작은 예물까지 잊지 않고 살뜰하게 챙기는 것을 보면, 서로 간에 이어진 오랜 친교로 인해 가족들도 모두 알고 함께 챙겨주는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낙심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귀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향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왕세정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권력을 전횡하던 엄승의 사망과 새로운 임금인 明穆宗의 즉위였다. 명목중 隆慶 원년(1567) 8월, 왕세정과 그의 동생은 황궁 앞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승이 그를 모함하여 죽었다고 탄원하였다. 大學士 徐階는 왕세정을 지지하여 왕여의 관직을 회복시켜주었다. 그리고

42) 李攀龍, 〈報元美〉 제2수, “先是子與一介得讀足下遊陽羨稿, 去迫, 欲不待報. 是以無附音, 悵悵久之, 而徐按察寄至矣. 善卷洞若在下, 天樂哉. 瘍乃復作苦今狀, 豈當如墮屨辦邪. 不得一撫我. 元美扼腕永歎也. 桓文爲盛壯哉. 斯言狎主齊盟, 蓐食自愛. 梁伯龍口吻, 不獨五色, 兼有熱腸. 惟恐不佞不一渡江, 其所稱述, 君家兄弟宛然目前. 子與近稿風格似上, 爲是其遷官力乎. 恨不見明卿耳. 北鄙荒涼, 無以致太夫人前. 何耳. 蠶盆筐爲敬美, 可令一出否, 宦學不惡也.” 《滄溟先生集》 권30, 566쪽.

왕세정 역시 다시 관직에 복귀할 기회를 얻어 융경 2년(1568) 43세에 大名兵備副使에 임명되고, 이후에 山西按察使, 浙江布政司左參政에 천거되었다. 그러나 왕세정은 융경 4년(1570)에 모친상을 당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반룡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도 전해졌으므로 왕세정은 크게 상심하여 그를 위한 애도문들을 여러 편 써내면서 슬픔을 달래었다. 이반룡이 죽은 후 향후 명대 문단의 복고주의 문풍은 왕세정이 주도하며 큰 영향력을 미쳤다.⁴³⁾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이반룡과 왕세정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반룡과 왕세정이 주고받은 서신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반룡이 왕세정에게 보낸 편지와 왕세정이 이반룡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두 사람이 교류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적과 함께 했던 활동들, 서로 공유하였던 문학과 사상,知己에 대한 우정 등을 살펴보았다.

명대 중후기 복고주의 문학론을 주장했던 후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李攀龍(이반룡)과 王世貞(왕세정)은 열두 살의 나이 차가 있었지만, 이반룡은 총명하고 재능 있는 왕세정을 매우 아끼며 후의를 베풀었고, 왕세정 역시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던 이반룡을 신뢰하며 따랐다. 이반룡은 가정 23년(1544)에 31살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으며 왕세정은 가정 26년(1547) 22살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진사에 급제하여 刑部에 임관한 신임 관원들, 즉 宗臣(종신), 梁有譽(양유예), 徐中行(서중행), 吳國倫(오국륜) 등과 서로 교류하며 시회를 만들었고 관료 생활의 교환과 문학 창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혹은 낙향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기도 하였지만 편

43) 張廷玉 等, 《明史·文苑三·王世貞傳》 권287.

지를 왕래하고 시를 창화하면서 이반룡이 용경 4년(1570)에 별세하기까지 약 20년 넘는 동안 굳게 우정을 지켜갔고 서로 의지하였다. 이반룡이 죽은 후 왕세정은 그를 위해 〈李于鱗先生傳〉을 쓰고 120韻에 이르는 〈哭李于鱗〉의 시편을 작성하여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반룡과 왕세정이 남긴 서신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반룡과 왕세정을 포함한 후칠자 문인의 다양한 문장과 문학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후칠자 문학운동이 명대 중후기 문단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반룡과 왕세정을 중심으로 한 후칠자의 문학 이념, 시문 창작의 특징, 그리고 문학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폭넓게 고찰하고, 나아가 이들이 명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후대에 끼친 문학적 영향력까지 규명한다면 명대 중후기 문학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근우, 〈王世貞生平簡述及其儒道釋三教的立場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50집, 2012.
- 王國德, 〈論後七子的文學理論及其演變〉, 《중국인문과학》 제44집, 2010.
- 이학당, 위홍, 〈李德懋의 明代文學 비평에 대한 일고찰〉, 《한국실학연구》 제21집, 2011.
- 이훈, 〈擬古詩창작의 전통과 申欽의 〈後十九首〉 연구 — 李攀龍의 〈古詩後十九首〉와의 擬古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81집, 2020.
- 정길수, 〈許筠 문학론의 모순과 一貫 — 王世貞 혹은 擬古文派 문학론과의 연관〉,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2013.
- 정민, 〈이언진과 일본문사의 왕세정 관련 필담〉, 《동아시아 문화연구》

- 제49집, 2011.
- 정이화, 〈명대 정덕(正德), 가정(嘉靖) 연간 종당시학(宗唐詩學) 관념의 전승, 변화와 그 지향〉, 《漢文學報》 제30집, 2014.
- 정용건, 〈象村 申欽의 擬古樂府 창작에 미친 明代 文學論의 영향 — 〈漢鑿歌〉 18곡을 중심으로〉, 동양고전학회 《東洋古典研究》 제70집, 2018.
- 김보성, 〈象村 申欽과 前後七子 批評의 비교 연구: 〈晴窓軟談〉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정애, 《王世貞 《藝苑卮言》의 復古理論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병순, 《朝鮮後期 文人들의 前後七子에 대한 對應 양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麗波, 《王世貞文學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1.
- 許建崑, 《李攀龍文學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
- 徐朔方, 《王世貞年譜》,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3.
- 鄭利華, 《王世貞年譜》,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3.
- 張廷玉 等,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 黃志民, 《王世貞研究》,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76.
- 周穎, 《王世貞年譜長篇》, 上海交通大學 博士學位論文, 2017.

<Abstract>

Li Panlong (1514~1570) and Wang Shizhen (1526~1590) are considered leading figures of the Later Seven Masters, a literary group that advocated for the restoration of classical literary principles in the mid-to-late Ming Dynasty. In the early stages, Li Panlong led the literary movement

of the Later Seven Masters, but after his death, Wang Shizhen dominated the literary scene for the next 20 years. Although Li Panlong was twelve years older than Wang Shizhen, he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young and intelligent Wang, who came from an esteemed scholarly family, treating him with great generosity. In return, Wang Shizhen admired and followed Li Panlong, who was highly regarded for his poetry and prose.

Li Panlong passed the imperial examination as a jinshi in the 23rd year of the Jiajing reign (1544) at the age of 31, while Wang Shizhen attained the jinshi degree three years later, in the 26th year of Jiajing (1547), at the age of 22. The two men, along with fellow newly appointed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Justice—such as Zong Chen (1525~1560), Liang Youyu (1521~1554), Xu Zhongxing (1517~1578), and Wu Guolun (1524~1593)—formed literary group where they exchanged ideas on poetry, prose, bureaucratic life, and personal struggles.

Although Li Panlong and Wang Shizhen sometimes worked in the same location and at other times lived apart due to their respective retirements, they maintained their friendship through letters and poetic exchanges. Their deep bond lasted for over 20 years until Li Panlong's death in the 4th year of the Longqing reign (1570). After Li Panlong's passing, Wang Shizhen wrote *The Biography of Li Yulin* (Li Yulin Xiansheng Zhuan) and composed a 120-rhyme elegy, *Crying for Li Yulin* (Ku Li Yulin), expressing his profound grief.

Key Words : 이반룡(Li Panlong), 왕세정(Wang Shizhen), 후칠자(Later Seven Masters), 서신(letter), 시문 창화(poetic exchange), 시사(literary group), 복고주의(restoration of classical literary principles)

